

이의리 복귀 준비...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의리 복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 어깨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KIA 타이거즈 좌완 이의리가 불펜 피칭을 하면서 복귀 청신호를 쫓았다.

KIA 김중국 감독은 지난 31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이의리는 일요일(9월 3일) 선발 예정이다. 불펜 피칭했는데 특별한 통증 없고, 불펜 피칭 잘 한 것 같다”고 이의리의 근황을 전했다.

지난 23일 어깨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이의리는 이날 20개의 공을 던지면서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앞서 이의리는 지난 22일 KT와의 경기 도중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4회를 끝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강판 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던 이의리는 23일 재검진 결과에서도 다행히 단순염증(견쇄관절 부분 염증) 진단을 받았다. 우려했던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KIA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의리를 엔트리에서 빼고 ‘휴식’을 줬다. 그리고 3일을 D태어로 해서 이의리의 복귀가 준비되고 있다.

이의리가 불펜 피칭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아직 ‘관문’ 하나가 남았다.

이의리는 1일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엔 문제가 된 어깨 부위 뿐만 아니라 팔꿈치 등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병원 두 곳에서 ‘더블 체크’를 할 방침이다.

KIA는 20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가장 많은 잔여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믿었던 산체스까지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군이 되면서 이의리의 복귀는 ‘천군만마’다.

어깨 부상 ‘단순염증’ 진단 불펜 피칭하며 복귀 준비 오늘 재검진...팔꿈치까지 점검 눈 앞 1경기 보다 ‘미래’에 무게

하지만 이의리는 팀은 물론 한국 야구를 이끌어야 할 미래인 만큼 KIA는 이의리의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단은 재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을 경우 이의리를 다시 마운드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의리는 2021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3년 차 선수다.

2021년 19경기에서 나와 94.2이닝을 소화하는 등 입단 첫해부터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한 이의리는 지난 시즌에도 29경기에서 나와 154이닝을 던졌다. 지난해 프로 첫 10승에 성공한 이의리는 올 시즌에도 21경기에서 100이닝을 던지면서 2년 연속 10승에 성공했다.

고졸 신인 시절부터 선발진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이의리는 프로 첫해 도쿄 올림픽에서 사실상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WBC 대회에도 참가하기도 했다.

일찍 시즌을 준비했던 상황에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예정되면서 KIA는 이의리의 몸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1경기 보다는 팀과 이의리의 ‘미래’에 무게를 두고 KIA가 ‘특별 자산’의 복귀 날짜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광주FC, 1위 울산 잡으러 ‘호랑이굴’로 간다



광주FC가 ‘1위’ 울산 상대로 경쟁력을 확인한다. 광주는 울산현대와의 K리그 1 2023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위해 9월 3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으로 간다.

뜨거운 8월을 보냈던 광주는 도전의 9월을 맞는다.

광주는 지난 8월 4경기에서 2승 2무로 지지 않았다. 포항스틸러스,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무승부는 선제실점을 하고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만들었다. 앞선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4-0 대승을 거두면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10골 3실점으로 뜨거운 화력도 과시한 광주는 리그 3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9월 첫 경기부터 쉽지 않다. 광주는 울산을 시작으로 FC서울, 전북현대를 만난다.

적지에서 만나는 울산은 19승 4무 5패(승점 61)의 전적으로 2위 포항을 11점 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8월 2승 2무로 3위에 올라 올 시즌 울산 상대 첫 승 도전

울산은 올 시즌 광주가 이겨보지 못한 상대이기도 하다. 광주는 올 시즌 울산과 두 번 만나서 2패만 기록했다.

4월 20일 울산 원정에서 후반 36분 이강현이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울산 바코와 주민규에게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7월 2일 안방에서 열린 두 번째 대결에서는 상대 골키퍼 조현우의 잇단 선방에 막혀 0-1로 졌다.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는 이번 원정을 앞두고 전력 누수도 있다.

‘에이스’ 엄지성과 허율이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됐고, 티모와 아론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팀에서 가장 많은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원발의 달인’ 아사니도 경교 누적으로 그라운드에서 오르지 못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난적을 만나

게 됐지만 광주는 ‘팀워크’로 울산의 벽을 넘겠다는 각오다. 위기 상황에서 이정호 감독이 보여줄 용병술도 관심사다.

이정호 감독은 매 라운드 선수들을 성장시키면서 광주 돌풍의 중심에 있다. 끊임 없는 연구와 물러서지 않는 공격 축구로 3위까지 광주를 끌어올린 사령탑이 어떤 전략으로 울산을 상대할 지 이번 라운드 관련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울산은 마틴아담과 루빅손, 바코 등 외인 선수들은 물론 이정용, 엄원상, 설영우, 김영권, 조현우, 주민규 등 공수에 걸쳐 국내 최고의 선수들을 앞세워 1위 독주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어느 팀을 만나든 끝까지 가는 승부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다.

0-1로 패배로 끝났던 앞선 울산전에서도 ‘적장’ 홍명보 감독도 “어려운 경기였다”고 광주의 투혼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었다.

광주가 끈끈한 조직력과 뜨거운 공격으로 선두 울산을 꺾고 승리로 9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에이스’ 엄지성 8월 영플레이어상



광주FC의 ‘에이스’ 엄지성(사진)이 8월 영플레이어 어상 주인공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1일 엄지성을 8월 K리그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2021년 8월 신선훈 영플레이어상 초대 수상자인 엄지성의 개인 통산 두 번째 수상이다.

영플레이어상은 매달 K리그1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주어진다.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2000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경기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1시즌 이후 데뷔)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 팀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 출장한 선수를 후보

군으로 한다.

수상자는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엄지성은 8월 4경기에 모두 출장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8월 마지막 경기였던 27일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멀티골을 장식하면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로 광주는 3위까지 올라섰다.

8월 영플레이어상을 놓고 광주 정호연이 엄지성과 집안 싸움을 하는 등 전병관(대전), 황재원(대구) 등 17명이 후보로 각축을 벌였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전북의 경기에 앞서 진행된다. 엄지성은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골 재도전

김민재의 뒤편, 글라트바흐전 3연승 준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리그컵(카라바오컵) 탈락으로 한풀 꺾인 팀 분위기를 시즌 첫 공격 포인트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토트넘은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버리와 2023-2024 EPL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2023-2024 시즌 개막 이후 토트넘은 리그에서 2승 1무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일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 원정에서 승부차기 끝에 져 기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2008년 리그컵 이후 어느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한 토트넘이 정상에 도전할 대회 첫 경기 만에 하나 사라진 것은 특히 아쉬운 대목이다.

리그 무패는 이어지고 있으나 주전 공격수로 기회를 얻고 있는 히샤르리송이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골잡이 해리 케인의 공백이 더 부각되고 있어 토트넘으로선 이 부분 보완이 과제로 떠올랐다.

버리는 특히 손흥민에게 특별한 기억을 지닌 상대다. 2019년 12월 열린 2019-2020시즌 16라운드 홈 경기 때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첫손에 꼽을 만한 골이 버리를 상대로 나온 바 있다.

당시 손흥민은 자기 진영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불을 잡은 뒤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 선수 6명을 무력화하며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질주한 거리가 약 70m에 달하는

‘원더골’이었다.

이 골로 손흥민은 한 해 최고의 골을 가려 시상하는 푸슈카시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 버리전은 9월 A매치 2연전(웨일스-사우디아라비아)에 나설 국가대표팀 소집 전 마지막 경기이기도 해서 손흥민이 추억을 되살리며 기분 좋게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 수비수 출신 뱅상 콩파니 감독이 지휘하는 버리는 지난 시즌 강등됐다. 한 시즌 만에 EPL 복귀해 초반 2경기에선 전패에 그쳤다. 득점은 1골에 불과하고 실점은 6골을 기록 중이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활약하는 바이에른 뮌헨은 3일 오전 1시 30분 뮌헨글라트바흐와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인다.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린 케인 효과를 누리며 개막 연승 중인 뮌헨은 3연승에 도전한다. 뮌헨글라트바흐는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이재성의 마인츠는 2일 오후 10시 30분 베르더브레멘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은 친정팀 프라이부르크와 홈 경기를 준비한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은 허벅지 부상으로 이번 주에도 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부상 중임에도 대표팀 명단에는 이름을 올린 EPL 올버햄프턴의 황희찬,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이 소속팀 경기에 나설지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1라운드 지명권 없는 페퍼저축은행 2~3라운드서 3명, 어떤 선수 품을까

KOVO, 10일 신인 드래프트

광주체고 박소연·오가울

목포여상 노은지·조영주

광주여대 이채은 선수 ‘주목’

2023-2024시즌 신인 선발 1라운드 지명권을 헌납하는 댓가를 치른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AI페퍼스)이 오는 10일 2-3라운드에서만 최다 3명을 선발한다.

페퍼저축은행은 7개 구단이 1라운드에서 모두 지명된 뒤 8번째부터 지명할 수 있어, 주춤에 의한 변수에 기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2023-2024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는 39명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1명의 대학교 재학생 등 총 40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박소연·오가울(광주체고), 노은지·조영주(목포여상) 등이 참가한다.

광주여대 이채은(포항여고 졸업)은 유일하게 대학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최대어’는 국제대회인 ‘14회 아시아유스 U18 배구선수권대회 미들블록커상’을 받고 U18, U19, U20 등 세 차례에 걸쳐 유스 대표팀에 선발된 한봉고 김세빈이 꼽힌다. 전주근영여고 전수민, 한봉고 정수지, 일신여상 박선숙, 포항여고 박수빈, 제천여고 유가람, 선명여고 신은지는 올해 U19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V-리그 셋발을 발굴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페퍼저축은행 부임 후 첫 선택을 하는 조 트린지 감독에게는 ‘그림의 떡’일 전망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5월 이고은을 재영입하는 과정에서 2023-2024시즌 신인 선발 1라운드 지명

권을 내줬다. 1라운드 지명권은 이고은의 이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행사하게 되며 페퍼저축은행은 한국도로공사의 2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추첨을 통해 가장 빠른 순번으로 2라운드 1순위로 8번째에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지명선수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 역순을 기준으로 페퍼저축은행 35%, IBK기업은행 30%, GS칼텍스 20%, KGC인삼공사 8%, 현대건설 4%, 흥국생명 2%, 한국도로공사 1%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선발한다.

페퍼저축은행의 한국 선수 현원은 이달 현재 15명으로, 정원 18명에 맞춰 2라운드 2명·3라운드 1명 등 나머지 3명을 선발할 수 있다.

AI페퍼스 관계자는 “지명 순서가 빨라도 8번째 라서 우수한 기량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추첨 순에 의한 변수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선수도 당연히 포함해서 프로무대에 도전하는 40명에 대해 총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